

22-08(통권 930호) 2022.07.29

경제주평

■ 추가적 인플레이 압력, 폭염

 현대경제연구원

목 차

■ 추가적 인플레이 압력, 폭염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최근 물가 및 폭염 현황	2
3. 폭염으로 인한 물가 상승	4
4. 시사점	7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저 자 : 노시연 선임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

□ 경제연구실 : 신지영 선임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이부형 이사 대우 (2072-6306, leebuh@hri.co.kr)

Executive Summary

□ 추가적 인플레이 압력, 폭염

■ 개 요

최근 소비자물가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물가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6.0%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전방위적인 품목에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국민 삶의 질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7월 27일 현재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6.5일로 향후 연간 평년값인 11.0일을 상회할 전망이다. 폭염이 지속될 경우, 농축산물 등 서민 경제와 관련이 높은 식탁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최근 물가 및 폭염 현황

① 물가 현황

2021년 말부터 급등세를 지속한 소비자물가는 2022년 중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까지 3% 후반대의 상승률을 유지하였던 소비자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여 지난 6월에는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고치인 6.0%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전기·가스·수도가 9.6% 상승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품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도 각각 9.3%, 5.8%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다. 품목 중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등이 소비자물가 상승세의 상당 부분에 기여한 반면, 농축수산물의 소비자물가 기여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의 낮은 상승률을 고려하면 향후 농축수산물의 기여도는 증가할 전망이다.

② 폭염 현황

2022년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7월 27일 현재 6.5일로 폭염 강제 연도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총 31개년을 폭염 강제 연도(전국 평균 폭염 일수가 평년값보다 높음)와 폭염 약세 연도(전국 평균 폭염 일수가 평년값보다 낮음)로 분류한 결과, 폭염 강제 연도의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15.9일인 반면, 폭염 약세 연도는 5.8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7월 27일 현재 6.5일로 이미 폭염 약세 연도의 전국 평균 폭염 일수(5.8일)를 뛰어넘은 상황이다. 따라서 2022년은 폭염 강제 연도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 폭염으로 인한 물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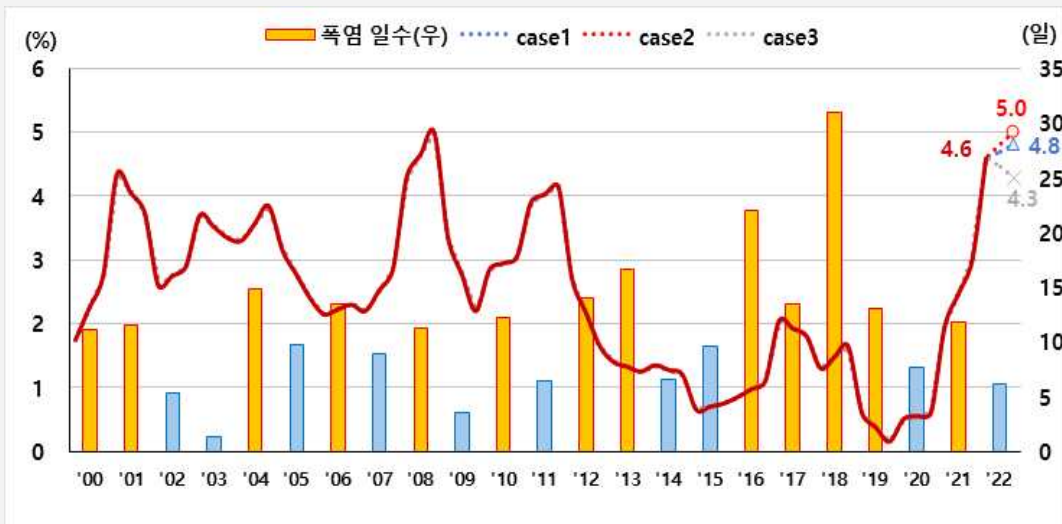
① 상·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 비교

폭염 강세 연도의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은 상반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폭염 약세 연도의 하반기 물가가 안정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폭염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폭염 강세 연도의 상·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폭염 강세 연도의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은 3.0%로 상반기 2.8% 대비 약 0.2%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서비스 등 품목에서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농축수산물의 경우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이 4.6%로 상반기 4.1%에 비해 약 0.5%p 상승하여 폭염이 주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폭염 약세 연도의 경우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이 상반기 대비 약 0.3%p 하락하여 폭염 강세 연도와 달리 하반기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농축수산물, 서비스 등 주요 품목에서 상반기 대비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이 하락하여 폭염 강세 연도와 달리 하반기 물가가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품목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농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의 품목에서 폭염이 물가 상승 압력을 크게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 강세 연도의 농산물과 축산물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대비 각각 0.1%p, 2.0%p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어 폭염 약세 연도의 경우 각각 0.5%p, 2.2%p 하락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폭염 강세 연도의 경우 가공식품과 외식 품목의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도 각각 0.6%p, 0.2%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폭염 약세 연도의 경우 각각 0.7%p, 0.5%p 하락한 것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폭염이 주요 식자재 물가 상승 압력을 확대시켜 전방위적인 외식·식탁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② 하반기 물가 전망

금년이 폭염 강세 연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폭염 발생 최상위 수준까지 근접할 경우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은 약 4.8~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도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을 폭염 강세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전망한 결과 **(case 1)** 올해 폭염이 강세 연도 평균 수준 정도로 발생할 경우,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4.6%에서 0.2%p 상승한 4.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case 2)** 올해 폭염이 최상위 수준인 2018년도 정도까지 심화할 경우,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대비 0.4%p 상승한 5.0%까지 확대될 수 있다. **(case 3)** 가능성은 낮으나 올해 폭염이 약세로 반전될 경우,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대비 0.3%p 안정된 수준인 4.3%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 폭염 강세 여부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 통계청, 기상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도별 상·하반기 평균임.

■ 시사점

2022년 현재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수준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해 서민 경제와 관련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하반기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농축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은 식탁 물가 상승 등 가계의 소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품목에 대한 물가 안정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폭염으로 인한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이 물가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소비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소비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기상 예측 능력을 확대하고 종합적인 위험 관리 강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1. 개요

- 최근 소비자물가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물가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 확대
-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전방위적인 품목에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국민 삶의 질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
 - 6월 소비자물가가 6.0% 상승한 가운데 체감물가지표인 생활물가상승률도 7.4%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서민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한편, 장마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현재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6.5일로 향후 연간 평년값인 11.0일을 상회할 전망이다)
 - 현재 전국 평균 폭염 일수(6.5일)가 같은 기간의 평년값(4.9일)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2022년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평년값(11.0일)을 상회할 전망
- 폭염이 지속될 경우, 농축산물 등 서민 경제와 관련이 높은 식탁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농축산물은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라 가격변동 폭이 큰 품목으로 식품, 외식 물가 등의 경로를 통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당함
 - 이미 가계의 물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폭염으로 인해 물가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 확대

<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상승률 >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월대비 기준.

< 월별 전국 평균 폭염 일수(단위: 일) >

월	평년	2022년
1~4	0	0
5	0.1	0.2
6	0.7	1.6
7	4.1	4.7
8	5.9	-
9	0.2	-
10~12	0	-
합계	11.0	6.5

자료 : 기상청.
주 : 2022년 7월 27일 기준.

1)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은 일 최고기온이 33°C 이상인 상태를 의미하며, 평년값은 '0'으로 끝나는 해의 최근 30년간의 누년평균값으로 2022년 기준 평년값은 1991~2020년의 누년평균값임.

2. 최근 물가 및 폭염 현황

① 물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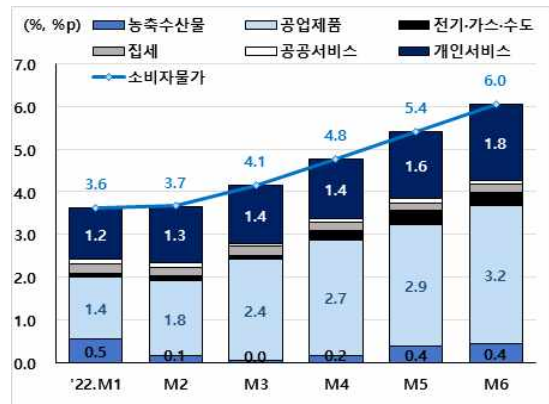
- 2021년 말부터 급등세를 지속한 소비자물가는 2022년 중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
 - 소비자물가는 작년 말부터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여 지난 6월에는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고치인 6.0%의 상승률을 기록
 - 올해 초까지 3% 후반대의 상승률을 유지하였던 소비자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여 지난 6월에는 전년동월대비 6.0% 상승
 - 품목별로는 전기·수도·가스,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등에서 높은 상승세 지속
 - 2022년 중 가파른 상승률을 보인 전기·가스·수도는 6월 9.6% 상승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품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도 각각 9.3%, 5.8%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
 - 품목 중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등이 소비자물가 상승세의 상당 부분에 기여
 - 공업제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6월 3.2%p까지 증가하여 전체 상승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개인서비스는 1.8%p를 기록
 - 한편, 농축수산물의 소비자물가 기여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3분기의 낮은 상승률을 고려하면 향후 농축수산물의 기여도는 증가할 전망

< 소비자물가 품목별 상승률 >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월대비 기준.

< 소비자물가 품목별 기여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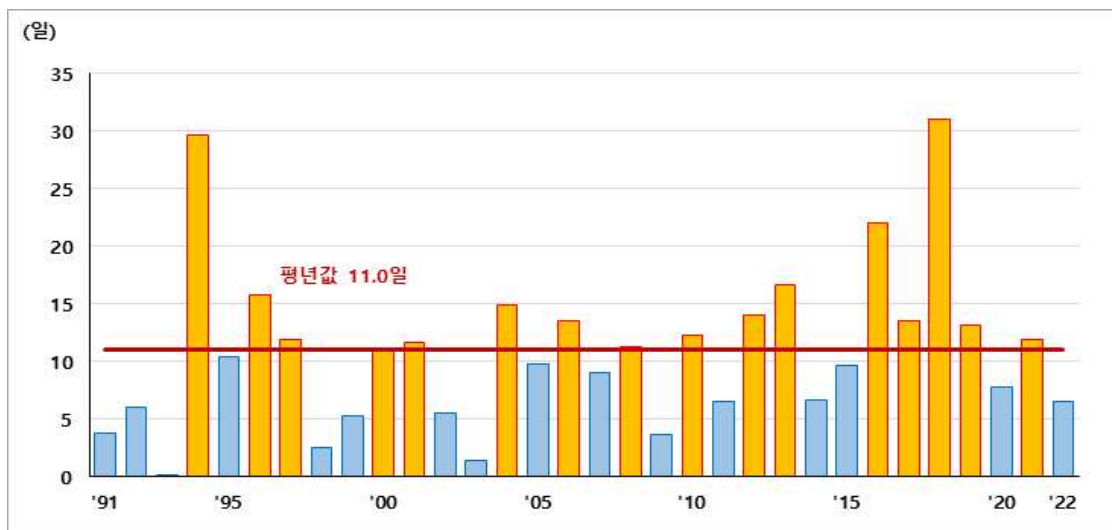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월대비 기준.

② 폭염 현황

- 2022년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7월 27일 현재 6.5일로 폭염 강제 연도²⁾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상황
 - 폭염 강제 연도(16개년)의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15.9일인 반면, 폭염 약세 연도(15개년)는 5.8일인 것으로 나타남
 -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총 31개년을 폭염 강제 연도와 폭염 약세 연도로 분류한 결과, 폭염 강제 연도 16개년과 폭염 약세 연도 15개년으로 구분됨
 - 폭염 강제 연도의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15.9일인 반면, 폭염 약세 연도는 그에 반에도 못 미치는 5.8일을 기록
 - 올해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7월 27일 현재 6.5일로 집계되어 폭염 강제 연도로 분류될 가능성이 큼
 - 7월 27일 기준 6~7월의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6.3일로 폭염 강제 연도의 평균인 7.1일과 비슷한 수준이며, 연간 합계로는 6.5일로 이미 폭염 약세 연도의 전국 평균 폭염 일수(5.8일)를 뛰어넘은 상황
 -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2년은 폭염 강제 연도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

< 전국 평균 폭염 일수 >



자료 : 기상청.

주 : 2022년은 7월 27일까지의 집계.

2) 전국 평균 폭염 일수가 평년값인 11.0일보다 높으면 '폭염 강제 연도', 낮으면 '폭염 약세 연도'로 정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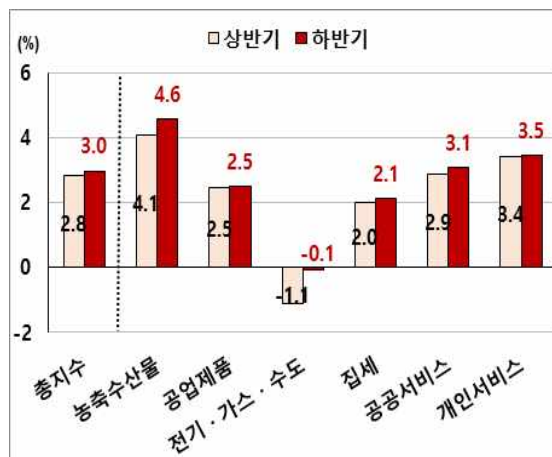
3. 폭염으로 인한 물가 상승

① 상·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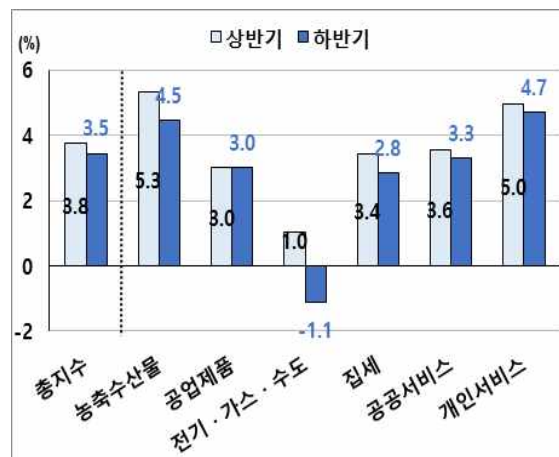
○ 폭염 강제 연도의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은 상반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폭염 약세 연도의 하반기 물가가 안정된 것과 상반된 결과

- 폭염 강제 연도의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대비 약 0.2%p 확대됨
 - 폭염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폭염 강제 연도의 상반기와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을 비교하였음
 - 분석 결과, 폭염 강제 연도의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은 3.0%로 상반기 2.8%에 비해 약 0.2%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서비스 등의 품목에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농축수산물의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은 4.6%로 상반기 4.1%에 비해 약 0.5%p 상승하여 폭염이 주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시사
- 폭염 약세 연도의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대비 약 0.3%p 하락함
 - 같은 방식으로 폭염 약세 연도의 상·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폭염 약세 연도의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대비 0.3%p 하락
 - 특히, 농축수산물, 서비스 등 주요 품목에서 상반기 대비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이 하락하여 폭염 강제 연도와 달리 하반기 물가가 안정된 모습

< 폭염 강제 연도의 평균 물가상승률 > < 폭염 약세 연도의 평균 물가상승률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동월대비 기준.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동월대비 기준.

○ 물가 품목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농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의 품목에서 폭염이 물가 상승 압력을 크게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품목을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폭염 강제 연도의 경우 농산물과 축산물의 물가 상승세가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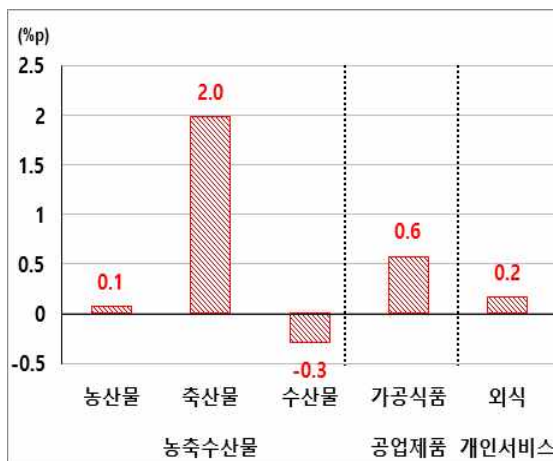
- 폭염 강제 연도의 농산물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대비 약 0.1%p 확대되었으며, 폭염 약세 연도의 농산물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이 상반기 대비 약 0.5%p 하락한 것과 큰 차이를 보임
- 축산물의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대비 2.0%p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는 폭염 약세 연도의 경우 약 2.2%p 하락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

- 또한, 폭염 강제 연도의 가공식품과 외식 품목의 하반기 물가 상승세도 확대되어 폭염이 식탁 물가 상승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

- 폭염 강제 연도의 가공식품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대비 0.6%p 확대되어 폭염 약세 연도의 경우 약 0.7%p 하락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임
- 외식 품목 또한 폭염 강제 연도의 경우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이 약 0.2%p 확대되어 폭염 약세 연도의 경우 약 0.5%p 하락한 것과 상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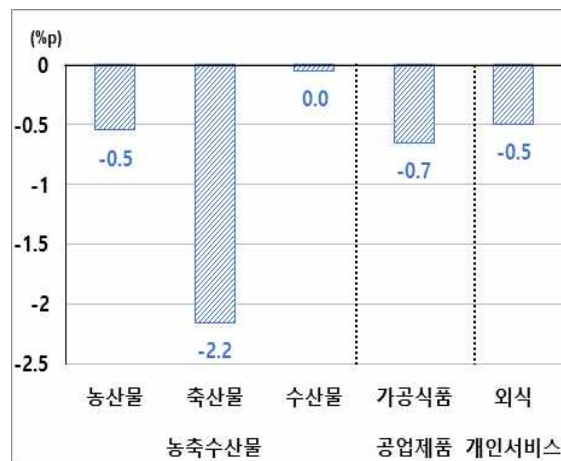
-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폭염이 농축산물 등 주요 식자재 물가 상승 압력을 확대시켜 전방위적인 외식·식탁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폭염 강제 연도의 상·하반기 물가 차이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동월대비 기준.

> < 폭염 약세 연도의 상·하반기 물가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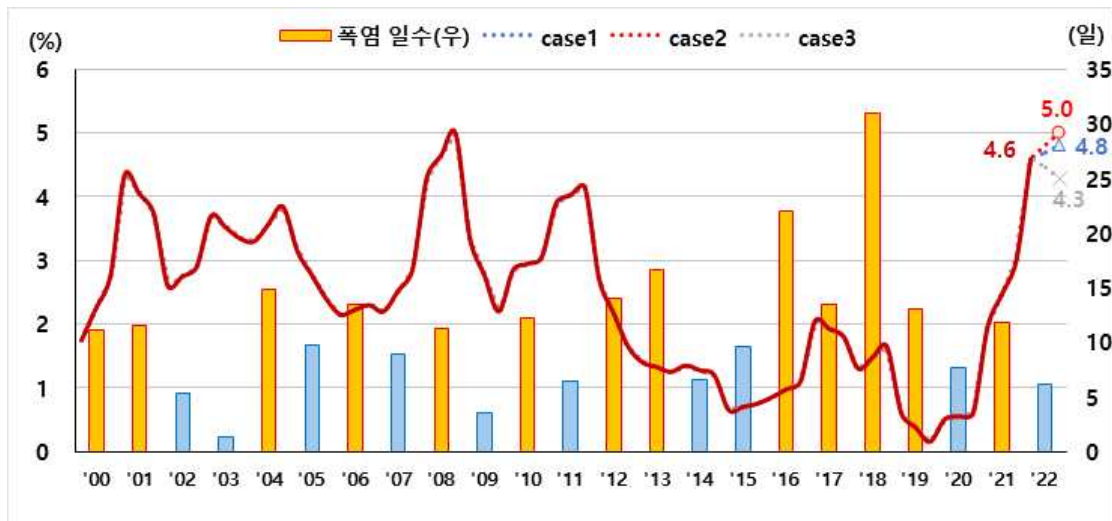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동월대비 기준.

② 하반기 물가 전망

- 금년이 폭염 강세 연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폭염 발생 최상위 수준까지 근접할 경우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은 약 4.8~5.0%에 이를 전망
 - 금년도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을 폭염 강세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전망
 - 현재의 폭염은 강세 연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나 최상위 수준까지 근접할 가능성도 있으며, 가능성은 낮으나 폭염 약세 연도로 분류될 수도 있음
 - 그에 따라 금년도 폭염이 강세 연도 평균 수준일 경우(case 1), 폭염 발생 최상위 연도까지 근접할 경우(case 2), 폭염 약세 연도로 진입할 경우(case 3)로 구분하여 각 case별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을 전망
 - 금년도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은 폭염 강세 여부에 따라 상반기 대비 0.2~0.4%p 상승한 4.8~5.0%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case 1) 올해 폭염이 강세 연도 평균 수준 정도로 발생할 경우,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4.6%에서 0.2%p 상승한 4.8%까지 상승 전망
 - (case 2) 폭염이 최상위 수준인 2018년 정도까지 심화할 경우,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대비 0.4%p 상승한 5.0%까지 확대될 수 있음
 - (case 3) 가능성은 낮으나 폭염 약세로 반전될 경우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대비 0.3%p 안정된 수준인 4.3%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음

< 폭염 강세 여부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 통계청, 기상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도별 상·하반기 평균임.

4. 시사점

- 2022년 현재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수준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해 서민 경제와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하반기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첫째, 농축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은 식탁 물가 상승 등 가계의 소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품목에 대한 물가 안정 노력이 요구된다.

- 폭염 등 날씨가 농축수산물 작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의 저온·저장 시설 확대 등 물량 비축 역량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함
- 물가 안정 방안으로는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한 비축물량 선제적 방출 등 정부의 체계적인 수급 관리 노력을 통해 공급 받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춰야 함
- 또한, 수입 물량 쿼터 폐지, 의무 수입 물량의 조기 발주 등 농축수산물의 해외 수입망을 안정화하는 방법을 통해 가격 변동성 심화 시 수입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대응책도 고려해볼 수 있음
- 한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공식품, 외식 등 식품 가격까지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가격 모니터링 및 물가 안정 노력이 필요함

둘째, 폭염으로 인한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이 물가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소비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소비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 관련 품목의 가격 상승은 소비자의 물가 상승 체감도가 높아 전반적인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큼
- 물가에 대한 불안 심리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밥값 지원금 등 소비 지원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폭염이 서민 경제와 관련이 높은 품목의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가능

성이 높으므로 양극화 심화 방지를 위해 소비 지원책과 더불어 보다 다각화된 차원의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임

셋째, 장기적으로는 기상 예측 능력을 확대하고 종합적인 위험 관리 강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 2010년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약 12년간 여덟 해가 폭염 강세 연도에 해당할 정도로 폭염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한파, 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 현상에 따른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향후 기상 이변의 강도가 확대되고 일상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확한 기상 예측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농축수산물의 경우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수급 및 예측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상청,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기후와 관련된 기관들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 등을 강화하여 물가를 비롯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HRI**

노 시 연 선 임 연구 원 (2072-6248, syroh@hri.co.kr)
신 지 영 선 임 연구 원 (2072-6240, jyshin@hri.co.kr)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